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치는 공화국

건국 이래 류레없는 대동단을 맞은 공화국에서 사람들의 생사를 건 방역전쟁의 분분초초가 초긴장속에 흐르고있다. 하지만 방역위기의 도전과 난관이 아무리 엄혹하다 하여도 이 나라 인민의 얼굴에서 비판의 빛이란 찾아볼 수 없다.

필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곁사이 는 격난을 과감히 헤치며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과연 무슨 힘이 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용기백배하여 방역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는것인가.

그 힘은 역대의 자급이나 재부가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하나를 이룬 혼연일체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70여년의 력사는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증유의 도전과 시련을 헤치며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력사라고 할수 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행로에는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빈터 위에서 창조와 건설의 마치소리를 높이 울리던 새 조국건설의 나날도 있었고 원자탄을 들고 덤벼드는 침략자들을 보병총으로 물리쳐야 했던 가혹치열한 전장의 날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벼룩 한장 성한것이 없는 제미우에서 복구건설을 하고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야 했던 때도 있었고 사면팔방에서 때를 지어 앉살 팡풍을 몰아오는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붉은기를 지켜야 했던 고난의 년대도 있었다.

공화국은 이러한 엄혹한 격난들을 수령의 두리에 천만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거대한 힘으로 격파하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을 이룩해왔다.

령도자는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이 혼연일체는 이 세상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최강의 무기로서 이는 공화국의 제일국력으로, 국력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위력으로 승리적전진을 이룩해온 공화국의 자랑찬 발전로정을 보면서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혼연일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은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격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온갖 적대세력의 침략과 도전으로 부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서나 국가진흥을 위한 창조와 건설사업에서나 언제나 백승의 기치로 되여온 공화국의 혼연일체는 오늘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데서도 그 위력

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우리에게서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이 있고 장기화된 비상방역투쟁과정에 배양되고 다져진 사람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이 있기때문에 부닥치는 돌발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는 경애하는 리정은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이 나라 인민이 더욱 심장으로 절감한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위대한 인민의 단결된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으며 이

위대한 힘이 있어 조선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통쾌한 련전승만을 안아온다는 그것이다.

남들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흉내낼수도 재현할수도 없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땅위에 일어나 수없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진정 수령을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게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력사의 온갖 팡풍을 맞받아 헤쳐온 공화국은 앞으로도 불가항력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나갈것이다.

김승미

남조선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갈등과 대립

지구상에서 사회적갈등과 대립이 가장 극심한 곳이 남조선이다.

여야정치세력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해져 《국회》에서 고성과 주먹질이 오가는가 하면 청년세대와 중년세대, 로년세대사이 리해관계의 불일치가 심각해지면서 한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손자사이 서로 다른 리념과 주의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있다.

로년세대는 로인빈곤률과 로인자살률이 세계최고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는데로부터 로인기초연금, 로인공공의료확대를 비롯한 복지확대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제기하고있는 반면에 청년세대는 50%가 제 집이 없어 폭방살이를 하고 20%가 실업자일 정도로 집마련과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나니 부동산안정과 일자리문제해결, 최저임금인상을 전면으로 내걸고있다.

그런가 하면 중년세대는 집, 일자리, 복지문제에 사활을 걸고있는 청년세대나 로인세대와 달리 경제문제를 더 중시하고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인상, 《탈원전정책》, 환경보호문제 등 주요경제문제들에 대해서도 청년층과 중년층, 로년층은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면서 우상간신하고있다.

이러한 청년세대는 사회와 직장에서의 일정한 경제적위위를 가지고있는 중년세대때문에 청년일자리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고 보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년세대를 중요

의 대상으로 여기고있다.

가혹한 생존경쟁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차별, 취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 각종 차별속에서 성장한데로부터 소통과 협력, 남에 대한 배려보다 극단한 개인주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남조선의 20, 30대 청년층에서도 서로 반목질하고 인신모욕까지 해가며 혐오하는 풍조가 만연하고있다.

일명 《젠더갈등》으로 불리우는 남녀갈등은 지난 시기에는 인터넷에서 흥미본위로 서로를 비방하는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 체육과 문화계 지어 정계 등 사회 각계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남녀청년들이 《한남총》(남자들은 벌레와 같다는 의미)에 《김치녀》(남자에게 기생하는 여자), 《페미니스트》(여성우월주의자), 《마초》(남성우월주의자) 등으로 서로 힐뜩고 비방증상하다 못해 인터넷에서 집단적으로 인신공격에 나서고 심지어 살인, 성폭력 등 각종 범죄까지 저지르고있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각종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며 사회적갈등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있는것이다.

이렇듯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갈등과 대립은 극단한 개인주의와 사회적불평등이 만연하는 남조선사회가 빚어낸 악메이며 치유불능의 고질병이다.

본사기자



다들끼리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적갈등이 커지고있다.

덕과 정이 넘쳐흐르는 사회주의락원

뜻밖의 시련과 난관이 이 나라 인민의 삶에 흘러들었지만 그속에서도 더욱 뜨거워지는것이 있다.

바로 사회에 흐르는 덕과 정이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였던 한 제비동리는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이웃집에 순가락이 몇개이고 밤사발이 몇개인지를 알만큼 서로 관심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화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어 물질경제적으로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조국인민들이 시련속에서도 그렇듯 뜨거운 덕과 정을 지니고 살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동료들에게 놀라움을 표시한바 있다.

그도 그럴것이 문닫고 들어가면 열집에서 소 잡아도 무슨 일인지조차 알수 없고 또 알고있고 하지 않는 세상지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마땅히 생겨나는 감정일것이다.

시련속에서 더욱 뜨겁게 오가는 덕과 정.

실지에 있어서 이 나라는 덕과 정으로 부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왔으며 그것으로 오늘과 같이 어렵고 강고한 방역대전도 이겨내고있다.

얼마전 평양시 평천구역의 어느 한 약국앞에서 있는 일이다.

약국앞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구역을 사이에 놓고 중년의 한 남성과 두명의 군인들이 《우신각심》하고있었다.

다름아닌 그 군인들은 평양시안의 약품봉사과 의약품수송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군의부문 전투원들이었고 중년의 남성은 그 부군에 살고있는 주민이었으며 그의 가족이 성의껏 마련한 식료품이었다.

중년의 남성은 그 식료품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젊은 군인들은 지금처럼 인민들이 어려울 때 자기들은 인민들에게서 한방울의 물이나 한알의 낱알도 받을수 없다고 두손을 내흔드는것이였다.

본사기자 리연선

끝끝내 구력은 남성의 손에 도로 넘어갔지만 인민은 군대를 위하고 군대는 인민을 위하는 뜨거운 사랑과 정만은 서로 마주보는 눈빛을 타고 끝없이 오고갔다.

이런 광경은 최근 평양시의 어느 약국앞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풍경이다.

어찌 약국앞에서뿐이겠는가.

일터들에 가면 종업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아글타글 예쓰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마을에 가면 많지 않은 식당과 부식술, 의약품들을 사들여 이 이웃집에 털어주며 고부하고 격려해주는 다정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또 병원에 가면 창문쪽침대를 다른 환자에게 양보하고 자기가 쓰던 약도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양겨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도 들을수 있고 이미 년로하여 집에 들어온 몸이지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편히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다시 병원에 나와 제일 힘든 방역전선인 구급과에서 환자들 치료해주어다니던 담당의사가 쓰러지자 자기가 그의 의사의 담당세대들까지 말아 며칠밤을 교박 새우며 그 많은 세대들을 다 돌보고 치료해준 의료일군에 대한 이야기도 감동깊게 들을수 있다.

지금 이 시각도 덕과 정으로 가득찬 이야기는 끊임없이 태어나 이 땅의 공기를 더욱 포근하고 따스하게 하여주고있다.

비록 그 이야기의 갈래는 서로 다르지만 오늘 그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와 같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시고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락원, 그 품이 있기에 사람들사이에서 따뜻한 덕과정이 오가고 그 품에서만 자기들의 행복도 미래도 꽃피날수 있다는 확신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살아온 그가 한 이 말과 너무도 대조되는 말이 있다.

《나의 조국은 나의 희망, 나의 꿈, 나의 행복을 꽃피워주고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고향은 졸업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한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심장으로 리친 말이다.

그의 이름은 최복순, 고려식료기공공장에서 일하면서 로동자발명가로 소문난 그녀는 지난 시기 여러 과학기술축전과 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런 그가 얼마전 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로동자박사!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일하는 일터를 찾은 우리는 그에게 평범한 로동자로서 박사의 학위를 받은 심정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다섯남매의 넷째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그 후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한점 그늘없이 배우며 자라왔다.

《하늘은 편견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이것은 세계최초의 흑인여성비행기조종사 베세 커울먼이 한 말이다.

학교시절 그는 수학성적이 제일 뛰어나지만 흑인이라는 한가지 리유로 하여 참을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 가슴속에서 지닌 소박한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학업을 중단하고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오다 1975년과 1976년 사이에 두차례로 군대에 징병되어 군복을 입었다.

그 후 그는 불같은 정열을 안고 노력하여 여러건의 발명품들을 받았으며 소문난들을 출판물들에 게재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대학공부를 하면서 석사의 학위를 수여받은 그는 더 많은 지식으로 나라의 번영에 보탬이 될 일로 공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어려운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하여 박사의 학위를 받게 되었다.

박사예를 받아안은 날 같을 로동자가 박사가 되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그에게 공장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리의 언덕에 보답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사라고, 영웅으로 내세워주는데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라고...

축하의 꽃다발속에 묻혀 그는 울었다. 부모도 미처 알지 못한 재능의 싹을 찾아 천만고마운 품을 들어 올려준 조마운 조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예에 대하여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세상을 둘러보면 인간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사회

에서 인생의 모든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이 있었다. 허나 그것은 어지없이 빛났고 산산이 깨져져나가는 허무한 꿈, 실현 불가능한 희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사람의 넓은 품에 안아 세 사람의 마음속희망까지 헤아려 꽃피워주는 세상 이 바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이다.

아마 베세 커울먼이 최복순 녀성과 같은 로동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게 해준 조마운 조국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예에 대하여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세상을 둘러보면 인간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사회

본사기자 흥흥식

박사학위를 받은 녀성로동자

민족의 넋을 안고사는 해외동포들

《우리》의 울림—소해금

은 감동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졌다. 하여 나는 민족기악소조에 들기를 추다짐했다.

같은 소해금을 연주하는 언니들이 마주앉아 다정하게 손수룩이 활쓰기를 대주었고 소조지도원선생님이 기초훈련을 하는 나에게 힘을 주었다.

어느덧 약 한달동안 기초훈련은 물론 《아리랑》의 선율도 연주할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1년을 지내보니 우리 학교생활에도 익숙하고 소해금연주술도 부쩍 늘었다.

그러던 어느날 금강산가극단공연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학교에 다닐 때에도 가끔 금강산가극단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우리 학교에 편입하여 소해금을 배운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연이었으니 어서 가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의 날이 왔다. 그전에는 사회자가 우리 말로 공연종목을 소개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제 알아들을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척 기뻐했다.

공연종목들속에서 마음을 끈것은 소해금4중주였다.

정하게 높아졌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처음엔 소해금소리가 바이올린 울림을 닮았다고 생각하던 나였지만 그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야, 우리 악기 소해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은은하고 황홀한 울림이었구나. 나도 우리 민족악기의 맛이 나는 《우리》의 울림을 소해금으로 꼭 내뿜어야.)

나는 오늘도 그날의 소해금연주자들의 모습을 그리며 활을 켜다. 나를 흠뻑 반하게 한 소해금소리를 나도 내보고싶어서... 우리 학교에서 만난 소해금에서 《우리》의 소리가 울리는 그날을 그리며.

재일동포 흥수환

(이런 소리가 소해금에서 나다니... 어떻게 활을 쓰면 그리도 아름답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소리를 낼까?)

나는 감동으로 몸서 흥분했다. 래일 연주자들이 교포종교를 방문하여 우리를 지도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여 그 흥분은 더욱 커졌다.

다음날 나는 소해금을 들고 교포종교를 찾아가었다. 나는 어찌 소해금4중주에 출연한 연주자에게서 배우게 되었다. 곁에서 보고 들은 그의 연주습치는 눈을 떼지 못할만큼 우아했고 손이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물론 활을 켜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연주수준이 일



민족악기를 배우는 도교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